

# 일 도시 주민의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

순천전문대학 간호과 오 미 성

본 연구는 인간이 유한한 생명의 마지막 날까지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불안의 근본요소인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한다고 생각되어 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것이다.

연구대상으로는 만 15세부터 77세까지의 순천시내 거주자 중 404명(남177, 여277)을 임의추출 하였고, 자료는 집단에서는 연구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케 하였으며, 60세 이상 노인들은 간호학생들이 개별면담하여 수집하였다.

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14문항과 죽음에 대한 불안척도 23문항 등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.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 측정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수용정도를 보는 것으로 Thorson, J.A. & Powell, F.C.(1988)에 의해 개발된 25문항 중 한국인 정서에 맞는 23문항을 택하여 부정문항은 긍정문항으로 바꾸고 문항순서도 조정하여 사용하였는데, 도구 신뢰도 Cronbach's  $\alpha$ 는 0.9288이었다. 각 문항은 5단계 Likert scale로 측정하였으며, 점수의 범위는 23점에서 11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.

자료는 SPSS/PC\*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,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는 평균·표준편차·최빈값·최대값·최소값을 구하고,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 차이는 t-test나 ANOVA로,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'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.

연구결과, 불안정도는 23점~115점 범위에서 평균 60.23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문항 중 암이나 수술 등 신체적 문제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죽은 후의 새로운 삶이나 사후정리면에서 높게 나타났다. 반면에 내세에 대해 모르는 점과 죽은 후 생각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불안을 나타냈다. 일반적 특성별 차이로는 여자가 남자보다( $P<0.001$ )·규칙적인 일이 없는 군이 있는 군보다( $P<0.01$ )·연령이 증가할수록( $P<0.05$ )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가 높았으며, 서양종교군이 동양종교나 무교군보다( $P<0.001$ )·학력은 높을수록( $P<0.001$ )·건강상태가 좋을수록( $P<0.001$ )·생활에 만족할수록( $P<0.001$ )·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( $P<0.001$ ) 죽음에 대한 불안정도가 낮았다.

이상의 결과로,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.